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수입업체에 있어서 7월과 8월은 전형적인 비수기이다. 공장들은 가동시간을 줄이고, 공장을 손질하거나 직원들 휴가를 보낸다. 8월 한 달 동안 '장사 잘한 집'은 거의 없는 듯하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기대하며 여름을 보냈다. 그런데 9월 시장을 살펴보니 의외로 수입물량이 많고 국제가격의 변동이 예측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 같다.

8월 중순, 미국 미시간 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검역원은 잠정적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했고, 모든 컨테이너가 수출항에 홀딩 되어 있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러시아, 멕시코,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다. 대다수 수입업체들은 조용히 브라질 가금육 수입에 역량을 집중시켰고, 기존의 3개 공장에서 7개 공장으로 확장되어 계약량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이 재개됐다. 8월의 수입물량(검역기준)은 크게 감소하겠지만 9월과 10월의 수입량은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업체들이 놀랄 만한

계약량이다. 국제가격 또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상승보다는 약보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식자재 업체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사용압력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정육이 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기존의 '발골 위주의 공장'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AI 가능성도 미국이 높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다.

미국

8월 중순,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하여 미시간 주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보름 후에 저병원성 H5N1으로 판명되었다. 철새의 이동경로를 살펴볼 때 이러한 뉴스는 향후에도 계속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2주 동안 가금육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고, 수입재개 후의 가격은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8월초 왕장각(Jumbo Whole Legs, Layer Packed)의 경우 1,150~1,200불 정도였으나, 수입재개 후인 8월 말의 경우 1,000불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

대다수 무역업체들이 날개(Wings)를 구매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정육(Bone Less Leg Meat)을 구매했고, 기존 닭고기 업체외에 더 다양한 업종의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격은 날개의 경우 2,500~2,600불 정도이며 정육의 경우 1,700~1,800불 정도이다. 향후에도 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브라질의 경우 6월부터 뉴캐슬병과 저병원성 AI가 꾸준히 발병한다는 것이다. 6월에 뉴캐슬병, 7월에 저병원성 AI, 8월에 뉴캐슬병이 그것이다. 사실 업계에서는 '브라질에서 정직하게 고병원성 AI라고 공식 발표' 할 일은 만무하다고 회자되기도 한다.

중국

AI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수십 마리의 살처분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공된 꼬치는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고, 월 평균 1,000~1,500톤 정도가 꾸준히 수입되는 것 같다.

과거보다 다양한 무역회사들이 제각각 훈제닭고기, 데리야끼, 자숙꼬치를 수입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AI로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

금까지 6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46명이 사망했고, 사람 대 사람 전염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발생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 섬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태국의 경우 AI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을 먹은 개가 치명적인 바이러스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덴마크

AI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정도면 수입재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통날개(Three Joint Wings)의 수출가격은 1,300불 정도이다.

결론

성수기로 접어드는 9월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혜롭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바랄 뿐이다. 현재 수입산 닭고기 재고와 9월과 10월 수입될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브라질 가금육 가격이 급락한다면 시장은 큰 혼돈 양상을 보일 것이며, 2002년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시장 참여자 분들의 슬기로우미 필요한 때인 것 같다. 